

주님의 기도

신현탁 바오로 / 증평

루카 형제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지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졌으니 우리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돌아옵시다. 많이 쉬셨으니 이제 같이 신앙생활로 돌아옵시다. 주임 신부님께서 이번 성탄 판공 때 그동안 쉬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면담으로 판공을 주신다니 우리 같이 나갑시다. 하고 양쪽 다리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넣어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친구를 찾았다.

그간에도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했던 중학교 동창인 친구라 스스럼없이 그간의 일을 이야기 하며 친구 부부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이겨냈으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 참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성당에 나가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며 이번 주에 나가 판공을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성당에 나가 판공성사를 보겠다는 친구 부부의 말을 들었을 때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느끼셨을 그 벅찬 마음, 가슴에 환한 빛이 비추며 나를 들뜨게 하였다.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실 나는 2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존 확률 15%도 안 된다며 큰일 치를 각오를 하라며 갈비뼈 3개 골절, 골반 골절, 횡격막파열, 폐 손상 등 13개의 진단명으로 수술을 무려 12시간이나 하는 대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설상가상 폐렴까지 와서 청주서는 고칠 수 없다하여 앰블런스에 실려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40여 일 동안 자가호흡이 불가하여 목에 구멍을 뚫고 인공호흡기와 연결하여 호스를 2개나 연결하여 호흡하며 치료하고 있을 때 호흡기와 환자의 박자가 맞지 않으면 호흡기의 호스가 툭 튀어나와 간호사가 황급히 쫓아와서 다시 끼워 놓곤 하였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호흡기 박자를 놓치지 않고 맞출까? 하고 생각하다 생각해낸 방법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맞추어보니 과연 주님의 기도를 노래 부를 때는 호흡기와 박자가 맞았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 외에는 계속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였다. 그러기를 30여 일 하던 어느 새벽에 어슴프레 잠이 깨어 다시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고 하얀 벽에 형광등 불빛만 비치는 벽을 무심히 바라보며, ‘아! 예수님 저는 이제 어찌 되나요.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건가요?’ 하고 치유의 희망을 놓고 자포자기의 체념의 비참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들 때,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과 함께 묵직한 음성의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말씨는 “바오로야 왜 겁을 내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이미 살려주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바오로야 힘을 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보려고 상체를 반쯤 일으키고 두리번거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빛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면회 들어온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니 당신이 맨날 주님의 기도만 올리더니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나 보네요. 전에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기도가 제일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잘 먹고 힘내서 이겨내도록 하세요.’하며 눈물을 흘린다. 90KG이 넘는 내 몸을 매일 몇십 번씩 들었다 놔다 하며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던 아내의 험스 해진 얼굴을 보며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회복 속도가 빨라져 3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3주일 후에 퇴원하였다.

그러나 골반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고관절 마모가 심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양쪽 다리 고관절 모두를 수술하는 여정이 뒤따랐다. 인공관절을 하고 다시 복직하며 완쾌가 되지 않은 몸으로 출근하여 목발을 짚으며 돌아다니자 인공관절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다시 바꾸고 또 퇴원하여 생활하다 다시 염증으로 다시 수술하기를 세 번이나 하였지만 염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이가 차 퇴직을 눈앞에 두고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걷다가 넘어져 인공관절 넣은 부분이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또 청주서는 못한다 하여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4개월 동안 4번이나 인공관절을 빼냈다 끼었다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래도 아산병원 원목실에서 드리는 미사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휠체어에 탄 채 참례하고 아내는 원목실 갈 때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그 무거운 휠체어를 잘도 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산병원 성당 축성식이 있던 날 환자들도 모두 새로 축성하는 성당으로 모여 휠체어 탄 사람들은 앞줄에 앉아 미사를 드렸다. 주교님께서도 두 분이나 오시고 신부님들도 많이 오셨다. 미사가 끝나고 모두 나가실 때 나는 엉뚱하게도 12년간 하혈하던 부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손을 댄 여자에게 힘이 빠져나감을 느끼시고 말씀하셔서 여자가 두려워 떨며 사실대로 아뢰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마르코 5.31-34)하신 말씀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신부님 수단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서너 발걸음 가시던 신부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시어 나에게 오시더니 머리에 안수하시고 강복을 주시며 “건강해지십시오.” 하신다. 앞이 멍멍하고 눈물이 왈칵 솟아 앞을 보지 못하는 감격의 순간이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으려니 옆에 있던 아내가 전후 사정을 모르고 저 신부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당신 아시는 신부님이예요? 하고 묻는다. 아니 내가 서울에 계시는 신부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니 아내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는다.

숨도 못 쉬는 위중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쉬지 않고 바친 나를 예수님께서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껏 비틀거리는 걸음으로나마 걷게 해주심에 매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한 12년간 하혈하던 부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의 신부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음을 굳건하게 믿는 저는 오늘도 제 옆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며 매일 미사 참례는 기본이고 전례봉사, 장례미사 운구 등 성당의 모든 일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려 힘쓰며 레지오 활동에도 본당 꾸리아 회계를 맡아보는 등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 부부가 ‘우리도 자네 부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느라 바빠 미안하네.’ 하며 빙그레 웃는다.

사고 전에는 겨우 주일 미사만 참례하던 나를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한없이 깊으신 사랑에 매일 매일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도를 오늘도 새벽에 눈 비비며 일어나 바쳐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아멘